
		<h1>보도자료</h1>			
<p><b>2019년 3월 5일(조간)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</b>  <small>* 인터넷, 방송, 통신은 3월 4일 11시부터 보도 가능</small></p>					
배포일시	2019.3. 4.(총 3쪽)	담당부서	가축질병방역과		
담당과장	류재규 과장 (063-238-7220)	담당자	김은주 연구사 (063-238-7231)		

## 나이 든 반려견, 건강 챙겨주세요

- 7세 이상 노령견, 보호자의 세심한 관심과 정기 검진 중요 -

- 농촌진흥청(청장 김경규)은 나이 든 반려견, 즉 노령견을 돌볼 때 주의해야 할 주요 질병과 그 특징을 소개했다.



<나이 든 반려견 모습>

○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11개 동물병원 진료 기록(전자차트)을 바탕으로 반려견의 나이를 분석한 결과, 7살 이상<sup>1)</sup>은 전체의 28.1%, 10살 이상<sup>2)</sup>은 전체의 17.3%를 차지했다.<sup>3)</sup>

- **7세 이상의 노령견**은 심장질환, 신장질환, 부신피질기능항진증, 유선종양, 자궁축농증, 백내장 등의 질환 발생이 크게 늘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.
- **심장질환**을 앓는 반려견은 가벼운 운동에도 힘들어하며, 호흡이 빨라진다. 늦은 밤에 기침을 자주 하거나, 갑작스럽게 기절할 수도 있다.
  - 심장질환은 보통 대형견보다 소형견에서 발생률이 높다. 품종에 따라 유전적 영향도 커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질환을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하다.

1) 사람 나이로 환산하면 44~56세 (2007. Veterinary Economics.48(10):40-48.)  
 2) 사람 나이로 환산하면 56세~78세 (2007. Veterinary Economics.48(10):40-48.)  
 3) Kim 등. 2018. PeerJ 6:e5161: DOI 10.7717/peerj.5161

- **신장질환**을 앓는 반려견은 평소보다 물 마시는 횟수가 늘어나거나 잦은 배뇨를 보일 수 있다. 간혹 요결석이 생긴 경우 혈뇨를 보기도 한다.
  - 신장은 네프론<sup>4)</sup>의 75% 이상이 망가지기 전에는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<sup>5)</sup>, 7살 이상 나이가 많은 반려견이라면 주기적인 검진으로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.
- **부신피질기능항진증**은 나이가 많은 반려견에서 흔히 관찰되는 호르몬 기능 장애로, 부신피질에서 코티솔의 분비가 증가하며 다양한 합병증을 야기한다.
  - 평소보다 물을 자주 마시며 소변을 자주 보거나, 복부가 처지고, 대칭적으로 털이 빠진다. 또한 근력이 약해지고 피부가 얇아지거나 탄력이 없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.
  - 특히, 면역기능이 떨어지면서 피부염, 피부 색소침착, 세균 감염 등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복되는 피부염이나 비뇨기계 질환 등으로 고생한 경험이 있다면 이 질환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.
- **유선종양**이나 **자궁축농증** 같은 질환은 중성화를 하지 않은 암컷 반려견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이다.
  - 유선종양은 유선조직에 발생하며, 종양이 발생한 경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종기나 혹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한다면 발견할 수 있다.
  - 유선종양의 경우 평균 약 50%가 악성인 경우로 보고<sup>6)</sup>되어 있으며, 방치 할 경우 신체의 다른 장기에 전이되어 생명에 치명적인 경우도 많아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. 첫 발정이 오기 전에 중성화를 한다면 0.5%까지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.<sup>7)</sup>

4) 소변을 만들어내는 신장의 구조와 기능의 기본 단위  
 5) Defauw 등. 2017. Journal of Veterinary Diagnostic Investigation 29.3:346-350.  
 6) Kim 2010. DVM360 MAGAZINE  
 7) Schneider 등. 1969. Journal of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 43:1249-1261

- 자궁축농증은 자궁이 세균에 감염되어 농이 차있는 상태를 말한다. 보통 갑작스러운 식욕부진, 구토, 복부팽만 등의 증상을 보인다. 질병의 진행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쇼크나 패혈증으로 생명이 위독할 수 있으나, 이 또한 중성화로 예방할 수 있다.
- **백내장**은 노령견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안구 질환으로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시력이 저하되고,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앞을 보지 못할 수 있다.
  - 반려견은 사람에 비해 후각과 청각이 예민해 시력장애의 문제가 늦게 발견되는 경향이 있다.
  - 시력장애가 있는 경우 평소보다 움직임이 조심스럽거나 자주 부딪히고, 보호자에게 예전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기도 한다.
  - 간혹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백내장이 오는 경우가 있어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다.
- 노령견의 건강 이상은 행동 변화로 나타난다. 낯선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보호자의 관심과 주의 깊은 관찰이 중요하다.
-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질병방역과 류재규 과장은 “노령견의 질병은 증상을 나타내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.”라며 “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질병을 미리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.”라고 말했다.